민주 '컷오프' 탈락 현시장 무소속 출마 변수

나주시장

민주 윤병태·이민준·최용선 3자 경선
김도연·양승진 무소속 도전장

이민준

윤병태

최용선

김도연

양승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위치한 나주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전남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예비 후보가 10여명이 넘어섰으나 최근 컷-오프를 통해 3명으로 경선 후보가 압축됐다. 하지만 일부 예비 후보들은 경선 컷-오프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재심 청구도 진행중이어서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7~28일 최종 경선을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윤병태 예비후보(61)와 3선 전남도의원 출신의 이민준 예비후보(58),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의 최용선 예비후보(44)가 3자 경쟁 구도로 최종 티켓을 노리고 있다.

일단 윤 예비후보는 기획재정부, 전남부지사 재임 등을 통해 축적된 행정 및 업무 경험과 중앙에 형성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관료 출신이라는 안정감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이민준 예비후보는 3선 도의원을 지낸 오랜 지방정치 경력과 두꺼운 지지층을 기반으로 결전에 대비하고 있다. 나주에서 줄곧 성장한 토종 정치인으로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고 지역 민심과의 소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만 성장한 정치 경력이 오히려 약점이라는 말도 나온다.

최용선 예비후보는 청와대와 국회, 기초자치단체 등에서의 경험을 내세우며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남을 대표하는 청년 주자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나주의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컷-오프에서 탈락한 강인규 나주시장과 순천부시장 출신의 김병주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나주시장 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식 후보를 선정하지 않은 가운데 무소속으로 소방서장 출신 김도연 후보(60)와 나주시 공무원 출신의 양승진 후보(68)가 도전장을 던졌다.

/임동욱 선임기자

현 시장 불출마 선언…무주공산에 6명 도전

광양시장

김재무·문양오·이용재 민주 경선
문선용·서장원·정인화 무소속 도전

김재무

문양오

이용재

문선용

서장원

정인화

광양시장 지방선거는 정현복 현 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하고, 무소속 돌풍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민주당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 문양오 광양시의회부의장, 이용재 전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또 문선용 전 광양시청팀장,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학교총장, 정인화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표밭을 다지고 있다.

김재무 도체육회장은 "광양의 열정 넘치는 청년 기업가에서 도의회 3선 의원, 도의회 의장, 전남체육회장, 도쿄올림픽 선수단 지원단장으로 거듭나며 늘 새로운 길 위에서 리더십을 검증받았다"고 밝혔다. 주요공약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다변화와 미래산업 준비, 기후 위기에 대응한 기술혁신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등을 발표했다.

문 부의장은 "KTX 광양운행을 민주당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융합도시 광양'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시민생활 안정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TX 광양유치, 코로나 극복 위로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원스톱 재활병원 유치, 치매 유전자 검사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전 도의장은 "'행복한 광양' '산업과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광양'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수소 중심의 경제도시와 스마트 항으로 향하는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 향상 등을 위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무소속 문선용 전 팀장은 광신대 음악학과를 졸업한 뒤 광양시 원예특작팀장 등을 역임했다. 정인화 전 국회의원은 광양시 부시장을 지내고 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며 표밭을 다졌다. 서장원 전 총장은 국가공무원으로 31년 근무하면서 입지를 넓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무소속 3선' 현 군수 4선 성공 신화 여부 주목

장성군수

유두석 군수 민주 '컷오프' 무소속 출마
민주당 김한종·박노원·유성수 경선

김한종

박노원

유성수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는 '무소속 3선' 신화의 유두석 장성군수의 4선 성공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돼 최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유 군수가 또 한 차례 '무소속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유 군수는 지난 2006년 민선 4기 무소속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했다. 이후 2014년, 2018년 연속해서 민선 6·7기 장성군수로 당선되면서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3선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황룡강 관광자원화를 비롯한 장성호 수변길 조성, KTX 장성역 재정차 등을 재임기간 성과로 꼽고 있다. 유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 도전도 미래 장성 발전을 위해 임기 중 추진중인 현안 사업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다선 군수에 대한 피로감과 민주당 경선에서의 '컷오프'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등이 나섰다. 이들은 3인 경선을 펼쳐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김 의장은 3선 도의원을 지내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체험 관광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2016년 장성군 부군수까지 지내면서 지방 행정과 중앙부처 등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다. 그는 ▲기업이 먼저 찾는 일자리 중심도시 ▲농민이 부자되는 스마트 농업 도시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편한 행복·환경도시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약사 출신인 유성수 전남도의원은 장성군 약사회 분회장, 초·중학교 운영위원장, 장성군 소상공인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활동을 폭넓게 해온 것을 바탕으로 바닥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장성군 내 모든 면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 ▲소상공인 필수 업종 지정, 지원 ▲장성호 주변 리조트 유치 통한 관광단지 확대 조성 ▲황룡강 복합 테마정원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민주 경선이 본선…전동평 현 군수 3선 여부 관심

영암군수

배용태·우승희와 민주 경선 치열
이보라미 정의당·박소영 무소속 출마

배용태

우승희

전동평

박소영

이보라미

영암군수 선거에서는 전동평 현 군수가 3선 고지에 오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역대 영암군수 선거 과정에서 3선 도전에 성공했던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 텃밭으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나 다름없어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민주당 경선에 뛰어든 후보자는 배용태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우승희 전 전남도의원, 전동평 영암군수 등 3인.

배용태 전 부지사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영암부군수, 목포시장 권한대행, 광양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을 지냈다. 그는 "월출산·영산강 등 천혜의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 '전남 서남권 신산업지대 거점' 육성 등으로 100년의 미래를 여는 신영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전남도의원을 거친 우 전 도의원은 '젊은 변화, 혁신 영암'을 외치며 출마를 선언했다.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하고 청탁과 비위 등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도 과감히 끊어내겠다는 등 깨끗한 젊은 정치인의 이미지도 드러내고 있다. 새해 월출산 천황봉에서 출마를 선언하는가 하면, 비대면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SNS)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신선한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 군수는 4선의 전남도의원과 재선 군수를 지낸 정치 경력을 앞세워 3선 고지를 향해 뛰고 있다. 전 군수는 재선을 지내며 파악한 영암 현실을 바탕으로 '영암 발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영암을 책임질 새로운 사업과 추진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복지 영암 건설에 나서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3선에 대한 지역민들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들 중 민주당 공천을 따낸 후보자는 정의당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과 무소속 박소영 후보와의 본선 경쟁을 치러야 한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전 군수(51.4%)를 상대로 34.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무소속 박소영 전 목포시 부시장 직무대행도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